바늘끝마다 '至誠無息' 정신 담아

산문밖의 禪

양복장이 50년 이해주 翁

종로1가. 셀프서비스 커피숍과 화려한 네온이 번쩍이는 노래방으로 어수선하지만, 79년째 가업으로 이어오는 종로양복점 대표 이해주옹(82세)에겐 여전히 양복점 거리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다.

교보문고에서 제일은행 본점의 중간쯤에 자리잡은 종로양복점. '1916년 창업'이라고 쓴 쇼윈도의 조그만 문구가 지나는 이들의 눈길을 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3평 남짓한 공간에 양복지며 갓 가봉을 마친 서너벌의 양복이 단정하게 걸려 있다. 여느 양복점과 다름없이 평범하다.

1916년 개업 3대째 가업

79년이라는 연륜에 비해 다소 실망스럽지만 다시 눈길을 돌리면 분명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누렇게 색바랜 초상화와 '至誠無息(지성무식)'이라고 쓰인 액자가 그것이다. 양복점으로 가업 3대를 이어온 이 집의 내력과 그 속에 '같은 값이면 한국인이 경영하는' '종로'를 찾았다. 이 바람에 각 학교에서는 일인양복점과 '종로'에서 반반씩 맞춰 입도록 강요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도 한때는 큰 재미를 봤다. 외국어대총장과 보사부장관을 지냈던 박술음씨, 이순용 전내무장관, 김석원 장군, 양순직 의원, 손주환 전의원 등 이름 석자만 대면 알만한 명사들이 그의 단골 고객이었다.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화를 하나 소개한다.

"옛날에 국무총리를 지냈던 정일권씨가 구라파에 가서 양복을 맞췄는데, 가봉을 열다섯번이나 오더래요. 그러니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나중에는 귀찮기도 했지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집도 열다섯번까지는 못해도 서너번은 가봉을 해요. 좋은 양복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느냐에 따라 명품이 나오느냐 졸작이냐가 결정돼요."

손님의 개성·품위 미리 볼줄 아는 안목 가져야

"정성 쏟을수록 명품 나와…세상 일도 마찬가지"

담겨진 정신의 뿌리인 셈이다.

초상화의 주인공은, 지금은 아들에게 운영의 모든 것을 물려줬지만 매일 오전 11시에 출근해 오후 4시 퇴근하기까지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이 집의 실질적인 주인 이해주옹의 아버지 이두용옹이다.

이두용옹은 종로양복점의 창업주다. 일본인 아래에서 일하던 이옹은 1915년 동경양복학교에 유학, 양복기술을 익혀와 이듬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양복점을 개업했다. 당시 일본인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던 양복시장에 과감히 뛰어든 것이다.

"한때는 재미를 톡톡히 봤다고 그래요. 일제 때는 학생들이 교복을 입었는데, 모두 우리집에 와서 맞췄어요. 일본사람들이 시기해서 싸움도 많이 했대요."

근대교육이 정착되면서 각급학교에 교복착용이 의무화됐고 학생들의 교복수요의 대부분은 '종로'가 수용했던 것. 그래서 각학교에서는 일본인 양복점과 종로양복점을 복수지정했으나 학생들은

그리고 다시 한마디 덧붙인다.

"세상 일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허투루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잘 나가던' 때가 아님을 그도 안다. 결혼예복도 기성복으로 입던지 빌려 입고 치루는 시대다. 그래도 양복예찬을 펼쳐놓는 그의 노안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옷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복에서도 한푼을 다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성복이 아무리 잘 나와도 치수 제대로 안맞아요. 맞춤양복전문가들이 보면 결함이 많아요. 구라파 가더라도 주문양복점이 엄연히 있어요. 다시 고급으로 돌아가지. 옷은 그 사람의 개성과 품위를 드러내는 작품이거든."

맞춤은 손님과 기술자가 얼마나 통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주문하는 사람도 자기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뭔지 잘 모른다.

"손님의 체형을 주의깊게 살피고 얘기를 하다보면 그 사람에 어울리는 모양이 머리속에 그려져요. 물론 다림질 한번, 손바느질 한땀하는 동안에도 지금 만들고 있는 옷을 손님이 입었을 때의 멋진 모습을 놓쳐선 안돼요."

이해주옹이 종로양복점을 가업으로 이어받은 것은 6·25 직후부터. 본래 양복점 운영에는 뜻이 없었다. 보통사람들처럼 직장인이 되는 것이었다.

옷에 몸 맞추는 세태

보성전문(고려대 전신) 상과를 졸업하고 지금의 미도파백화점에 자리했던 정자옥(丁子屋)이라는 백화점의 만주지사 양복부에 취직했다. 7년간을 근무하다 해방과 함께 귀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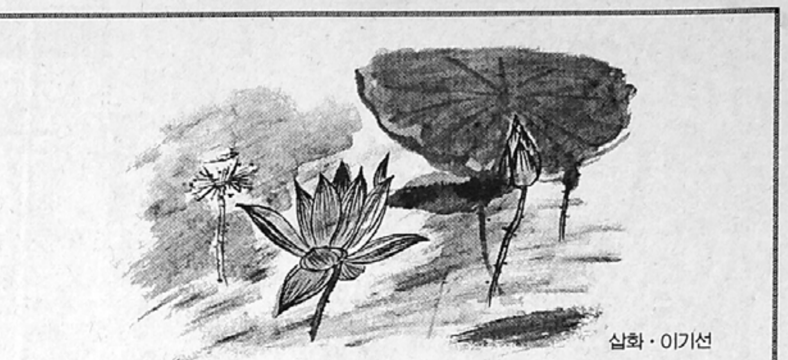
"왜정시대에는 한 학급에서 10여명밖에 취직을 못했어요. 어렵게 일자리를 얻은 것이 정자옥이었는데, 그것도 양복부였어요. 그만큼 양복과는 깊은 인연이 있었나봐요. 형님이 아버님을 이어 양복점을 하셨는데 병환으로 일을 볼 수 없게 되었고, '네가 맡아서 해봐라'하시더라구. 그래, 6·25 직후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지요. 그때는 뭐, 거창하게 가업을 잇는다, 그런 생각보다 아버님이 하시던 가게니까 해보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언 45년, 반평생을 양복 짓는 일로 살았다. 뒤를 돌아보니 부끄러운 생은 아니었지만, 너무 즉흥적이고 옷에 몸을 맞추는 식의 몰개성의 세태로 변해가는 세상을 보며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그럴수록 액자에 새겨진 글씨가 더욱 새삼스럽다.

'至誠無息', 쉼없이 온 정성을 다하자라는 글자풀이에 이어 "신용을 지키고 지성으로 양복을 만들면 손님이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문닫는 일은 없을 거예요." 다짐하듯 한마디 덧붙인다.

50여년 그를 지켜준 다그침이었듯 기성복시대에도 그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가르침이다. 그를 이어 3대째 가업을 잇는 아들 경주씨에게도 입버릇 하는 얘기다.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씨와 각별했던 재일교포 서예가 이원영 선생이 써주신 글씨라는 자랑도 잊지 않는다.

정성운 기자



삽화·이기선

효·선행·화목·인욕 생활화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⑩

수행(修行)

불교의 궁극적 수행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깨침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걸림없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 깨침과 무애자재는 어느 누구에게만 한정된 것일까. 누구나 참입할 수 있는건가. 여기에 대하여 각자의 견해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말하면 일상사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깨침이나 해탈자재가 별개의 세계로 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적확한 해답이 있다.

육조 혜능은 다음과 같이 설파하셨으니 평상인에게도 보람찬 희망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공부하고자 하려면 재가자도 무방하니라. 진리를 구하는데 있어서 절에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 재가인이라도 잘 행하면 저 동방인의 마음이 착한 것과 같고, 절에 있으면서 닦지 않으면 서방인의 마음이 악한 것과 같나니 다만 마음이 청정하면 자성이 곧 서방극락이니라"고 하셨다. 닦음에는 처소는 물론, 빈부귀천이나 유학무학을 구별치 않는 것이다. 불교가 없는 동방인이라 하더라도 마음을 밝게 닦아 착한 일하면 그것이 극락이고, 정토가 있는 서방인이라도 공부하지 않고 악한 일만 골라서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삼악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마음 굶으면 행실 바르지 못해

재가자의 마음 닦는 공부

다시 혜능은 무상송(無相頌)을 지어서 재가속인의 닦음으로 삼고 자재한 마음을 갖도록 하였다.

『마음이 평등하니 어찌 힘써 계를 가지며

행실이 정직하니 선을 닦아 무엇하랴

은혜 알아 부모님께 효성공양 잊지않고

의리 지켜 위아래가 서로 돕고 사랑하며

예의 알아 높고 낮음 서로서로 화목하고

인욕한즉 나쁜일들 걸릴 것이 하나 없네.

만약 나무 비벼 불을 내듯 할지면

진흙 속에 붉은 연꽃 어김없이 피어나리

입에 쓰면 몸에는 반드시 영약이요

거슬리는 말은 필시 마음에 충언이라

허물을 고칠지면 지혜가 살아나고

허물을 두호하면 마음 안은 어질지 않네.

일용생활 어느 때나 착한 행을 앞세우라

도 이룸은 재물 보시하는데 에 있지 않다

보회도는 한결같이 마음 향해 찾을 것을

어찌 힘써 밖을 향해 마음 구해 헤맬손가.

이 말 듣고 이를 따라 수행을 닦을지면

천당극락이 훤출하게 눈앞에 드러나리.』

얼마나 평이하고 간결한 표현인가. 마음 닦는 공부는 어렵다고 멀리 피해 가는 사람이 많다. 또한 얼마간 닦아온 사람도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머리를 흔드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혜능스님의 무상송을 한번만 읽어봐도 공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사에서 찾을 수 있고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만사속에 깨침과 닦음이 있고, 닦음속에 깨침이 솟구쳐 오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모든 대중이 할 수 있는 일

마음이 평등하여 모든 시비곡직을 떠나 있으면 그것이 계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어디에 얽매여 편중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의 생활속에 불평 부당한 시기심, 원망심, 복수심 다 사라지고 맹물마시는 시원함으로 마음갖는 것이 계지키는 것이라고 일러 주시니 저자에 있는 아낙이던 산골에 있는 나무꾼이던, 아니 사농공상하는 모든 대중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행실이 정직하고 올곧으니 선을 닦아 무엇하리. 사람은 바르고 맑고 환하게 살아야 한다. 숨기고 어거지 쓰고 윽박지르고 욕하고 때리기를 일삼으면 그 마음에 흠집이 생겨 종기로 곪아가게 되고 암으로 독집하게 된다. 곪은 마음은 사람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 사시의 눈으로 흘겨보게 된다. 이런 사람은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 그런데 수행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실이 본성적으로 좋은 사람은 선을 닦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불교의 궁극적 수행은 마음을 바르게 바로잡는 일이다. 부모에 효성하고, 의리를 귀히 여기며, 예도범절에 화목하고, 인욕을 생활화하고, 범사에 충실한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들 주변에 온갖 간악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마음에 종기가 나서 밖으로 피고름이 스며 나오는 것이다. 마음의 암을 치유하면 본래 면목의 천진으로 들어가고, 동안으로 꽃이 피게 될 것이다. 우리 손수 무상송을 읽으면서 제 마음의 종기를 고쳐야 할 것이다.

출판·편집 안내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인생은 짧고 기록은 영원합니다. 도서출판 사람들은 사회 각계 각층의 저명인사는 물론 보통사람들의 자서전·회고록·개인기록 등을 전문적으로 기획·집필·편집·광고를 해 드립니다.

◎자서전 ◎회고록 ◎출판대행
◎수필집 ◎시 집 ◎편집대행

※ 인생 경험과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스님과 불자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출판 기획만 원하시는 분, 출판 아이디어나 출판 예정인 원고가 준비된 분의 연락을 환영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전화 혹은 방문해서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에서 필요한 각종 홍보물을 전문적으로 기획·집필·편집·제작도 해 드립니다.

도서출판 사람들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3번지 2호 선덕빌딩 3층
전화 : (02)725-6752~4
팩스 : (02)725-6920

카운슬러대학

제20기 입학안내

현대생활에서의 각종 스트레스와 복잡한 인간관계로 갈등을 겪는 현대인의 지친 정신과 마음을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는 카운슬러는 아름다운「사회봉사직」입니다.

인간성 회복과 도덕성 회복운동에 앞장서온 본원에서는 그 권위와 전통을 인정받고 있는「카운슬러대학」제20기 수강생을 모집하여 전문카운슬러와 인간교육지도자를 양성,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개강 : 1995. 9. 14(목) (1년 전문과정)
- 과목 : 상담심리, 발달심리,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심리, 인간관계론, 감수성훈련, 교류분석, 정신위생, 상담기법, 심리검사, 위기개입, 부모교육, 상담실습
- 특전 : 본원 카운슬러 자격증 및 수료증 수여
- 과정 : 정규과정 및 지방거주자를 위한 통신과정
- 접수 : 원서는 본대학 교학과에서 배부(우송가능)
- 문의 : 본원 카운슬러 대학 교학과

☎ (051) 466-5161~2

교육부인가 전문카운슬러양성기관
사단법인 한국인간교육원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8-15 명지B/D 6층

법화경 강좌 안내

— 법화경은 <법화삼부경>의 약칭입니다 —

영남지역 불교인구의 저변확대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부처님의 정법인 〈법화경〉강좌를 아래와 같이 열고 있으니 불교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부산강원 : ① 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② 장소 = 좌천동 〈오비신호등〉 옆 혜남한의원 3층 전관

◉ 대구강원 : ①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② 장소 = 신암 2동 〈동신국교〉 뒤 자동차부품상회 2층 전관

— 강의시간 30분전에 오셔서 접수하세요 —

※ 입회비 없음, 교재무료·회비 3개월분 3만원, 필기도구 제공

대구시 동구 신암2동 486-13
법화경 연구원
원장 최공덕
휴대폰 = 011-528-8711

法華經 大講座

(제1기생 모집)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 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이자!
법화경은 중생들에게 보살도를 가르쳐 최고의 행복을 주리니

1. 연구반 30명
2. 통신반 약간명

강 주 : 법화경의 태두 惠耕 큰스님
기 간 : '95. 9월 3일부터 6개월간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부터
장 소 : 무설정사(84번 화계사 종점)
회 비 : 교재대 포함 20만원(분납 가능)
등록기간 : '95. 8월 15일 ~ 8월 30일

주 최 : 無說精舍 白蓮會
전 화 : (02) 983-0198
팩 스 : (02) 982-7598